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8월 2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9(월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8. 26. (금)	담당부서	화학서비스표준과
담당과장	장혁조 과장(043-870-5390)	담 당 자	이홍균 연구사(043-870-5397)

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, 국제표준화로 선제대응에 나선다

-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추진

- 국가별 환경인증의 상호인정

□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'15.12, 파리)에서의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

○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자국의 기술역량 확충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따른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: 제대식)은 이러한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표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'환경경영 국제표준화 회의(ISO/TC207*)'를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.

*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(ISO), Technical Committee 207

○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, 유럽연합의(EU)의 환경인증 통합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이 논의한다.

□ 우리나라는 독일·일본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두 개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며,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, 재난·질병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(가이드라인)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.

* 국제표준(안) : ①기후변화적응-취약성평가, ②기후변화적응-모니터링/평가

○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*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, 해당 표준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검증에 바로 적용한다.

*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(ISO 14080)

□ 아울러, 최근 유럽연합(EU)이 역내 239개 환경인증의 통합을 결정('20년까지 법제화)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단일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, 추진 중이다.

○ 우선,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유럽연합의 환경인증 단일화에 관한 사전연구를 진행중이며, 유럽연합의 포괄적 통합인증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인증제도의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나아가, '환경인증 상호인정-환경인증기관의 자격요건'에 관한 국제표준(안)을 미국 국립표준협회(ANSI)와 함께 공동으로 제안('15.10월)하였다. 따라서 국내 환경인증기관의 인증결과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.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이홍균 연구사(☎ 043-870-53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ISO/TC207 일반현황

□ TC명 : 환경 경영 (Environmental Managment)

○ ISO/TC207은 84개 정회원국, 32개 준회원국 및 33개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로, 환경라벨, 기후변화적응, 환경경영시스템, 전과정평가,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 환경경영 및 제품 환경성 관련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이다.

* 우리나라는 정회원(P-member)으로 활동

○ 간사국 : 캐나다(Canada)

○ 의 장 : Dr. Robert Page(캐나다)

○ 간 사 : Ms. Vanessa Mitchell(캐나다)

□ 분과위(SC)/작업반(WG)

분과위/작업반	분과위 의장(수임국)/작업반장(수임국)	분과위/작업반명
WG8	Mr. Katsuhiko Kokubu (일본)	물질흐름 원가회계 (Material-flow cost accounting)
WG9	Mrs. Luciana Valadares (브라질)	토양 황폐화 및 사막화 (Land degradation and dessertification)
WG10	Mr. Daniel Trillos (콜롬비아)	환경 배려 설계 (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)
SC 1	Dr. Anne Marie Warris (영국)	환경경영시스템 (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)
SC 2	Mr. Roberto Gomes Almeida (네덜란드)	환경감사 및 환경조사 (Environmental auditing and related environmental investigations)
SC 3	Mr. Daniel Trillos (콜롬비아)	환경라벨링 (Environmental labelling)
SC 4	Dr. John C. Shideler (미국)	환경성과평가 (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)
SC 5	Mr. Matthias Finkbeiner (독일)	전과정평가 (Life Cycle Assessment)
SC 7	Mr. Tom Baumann (캐나다)	온실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(Greenhouse gas management and related activities)

참고2 ISO/TC207 서울 총회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의제

□ (TC207/SC7)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

○ ‘기후변화 적응 – 취약성평가’ 및 ‘기후변화 적응 – 계획’ 국제표준안을 ISO/TC207/SC7에 제안 발표할 예정(**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요한 박사**)

□ (TC207) ‘발자국 인증기관 요구사항’ 국제표준화 추진

○ ‘발자국 인증기관 요구사항’ 표준안에 대한 NP 투표를 ANSI와 공동으로 요청하고, ISO/TC207/WG11 개설 추진(**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요한 박사**)

□ (TC207/SC1) ‘유니소재화 원칙’ 국제표준화 추진

○ ‘유니소재화 원칙’ 국제표준을 제안하기 위해서, ISO/TC207/SC1 유니소재화 국제표준화 워크숍을 추진(**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혜리 연구원**)

□ 제·개정 추진 중인 국제표준화 대응

○ (TC207/SC1) ‘환경영향 금전가치화’, ‘환경비용편익 결정’ 등

○ (TC207/SC2) ‘지속가능보고서 환경부분 검증’

○ (TC207/SC3) ‘발자국 정보전달’, ‘발자국 제품인증규칙’

○ (TC207/SC4) ‘환경기술검증’, ‘정량환경정보

○ (TC207/SC5) ‘물발자국’, ‘전과정평가

○ (TC207/SC7) ‘조직 탄소배출량 산정’, ‘프로젝트 탄소배출량 산정’, ‘탄소배출량 검증’, ‘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요구사항’, ‘제품 탄소배출량’, ‘상위수준 기후변화적응 프레임워크’, ‘온실가스 방법론’

참고3 EU의 환경인증 통합에 따른 국제표준화 현황

□ 전 세계 환경인증은 465종*을 넘어섰으나, 환경인증의 범람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**됨에 따라, EU는 환경인증 통합 방안***을 강구하고 있다.

* 199개 국가, 25개 산업분야에서 465종의 환경라벨이 운영되고 있음, www.ecolabelindex.com('16.7.26)

** 유럽위원회(EC)의 조사에 따르면, 설문 응답 소비자의 48%가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

*** 유럽위원회(EC)가 '친환경제품 단일시장 건설: 제품/기업 환경성과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 촉진'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보내는 전달문[1)]

○ 239종의 환경인증이 운영되는 EU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, 환경인증 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을 '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.



<그림> 통합을 요구받고 있는 다양한 EU 내 환경인증 예시

1) COM(2013)196,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,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 : Facilitating better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and organizations

○ 또한, WTO/TBT 협정이 요구*하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, 관련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* WTO/TBT 협정은 당사국이 환경보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, 이와 관련한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으나,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함

<표> EU 통합 환경인증(PEF/OEF) 관련 국제표준화(ISO/TC207) 동향

EU PEF/OEF 요구사항	관련 국제표준 제개정동향 (ISO/TC207 환경경영기술위원회)	비고
PEF 정보전달 방법	ISO/CD 14026 환경 라벨 및 선언 - 발자국 정보전달	제정 준비중
PEF 제품군별 인증규칙 개발방법	ISO/DTS 14027 환경 라벨 및 선언 - 제3유형 환경성 선언 - 제품 범주 규칙(PCR) 개발	제정중
PEF 일반요건	ISO 14025:2006 환경성표시 및 선언 - 제3유형 환경성선언 - 원칙 및 절차	개정 준비중
PEF 환경발자국 산정방법 (전과정평가)	ISO 14044:2011 환경경영 - 전과정평가 - 요구사항 및 지침	개정 준비중
PEF 탄소발자국 산정방법	ISO/AWI 14067 온실가스 - 제품 탄소발자국 - 정량화 및 정보전달 요구사항 및 지침	개정중
PEF 물발자국 산정방법	ISO 14046.2014 환경경영 - 물발자국 - 원칙, 요구사항 및 지침	제정완료
	ISO/FDTR 14073 환경경영 - 물발자국 - ISO 14046 적용 예시	제정 중
OEF 산정방법	ISO/TS 14072:2014 환경경영 - 전과정평가 - 조직 LCA 요구사항 및 지침	제정완료
PEF/OEF 전문가 검토 프로세스 및 전문가 자격	ISO/TS 14071:2014 환경경영 - 전과정평가 - 전문가 검토 절차 및 검토자 역량: ISO 14044:2006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	제정완료

□ 국제표준에 기반한 통합 환경인증이 도입되면, 아국 수출제품이 선진국 시장*에서,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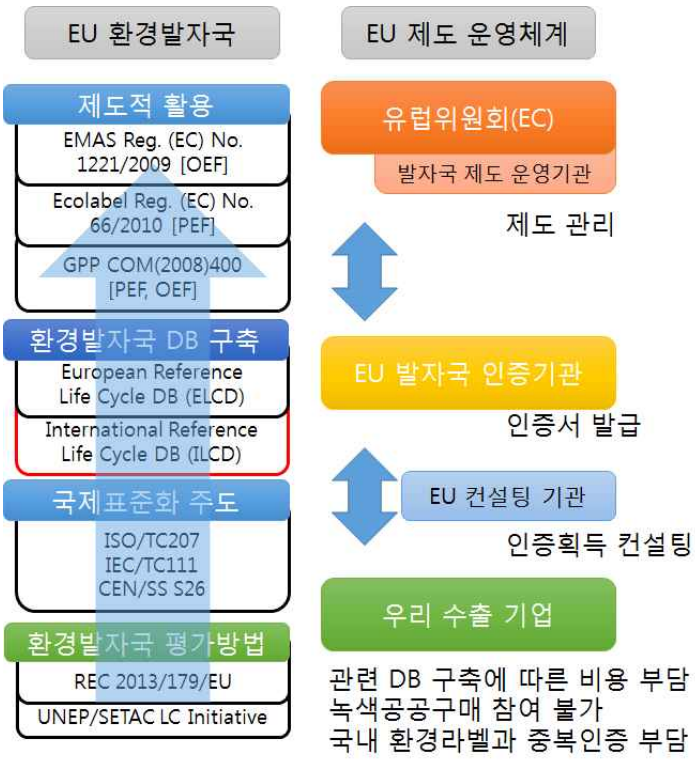
* EU 시장에서 '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/서비스' 시장 규모는 4조 2천억 유로 규모[2]이며, 연평균 성장률 4%대의 성장률[3]을 보이고 있다.

○ EU의 경우, 국제표준에 기반한 통합 환경인증(PEF/OEF, 환경발자국)*을 제도화 하는 법안을 '20년까지 마련하고, 이를 획득한 제품 및 기업만이 EU 녹색공공구매(GPP)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.

* EU의 통합 환경라벨(환경발자국)은 기업경영 및 제품의 원료물질 취득, 제조, 유통, 사용,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(Life Cycle)에 걸친 신뢰할 만하고, 비교 가능한 정보 공개가 핵심

○ 우리 수출제품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, 환경인증 통합, 인증제도 기반 구축, 상호인정 추진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나, 많은 시간이 소요*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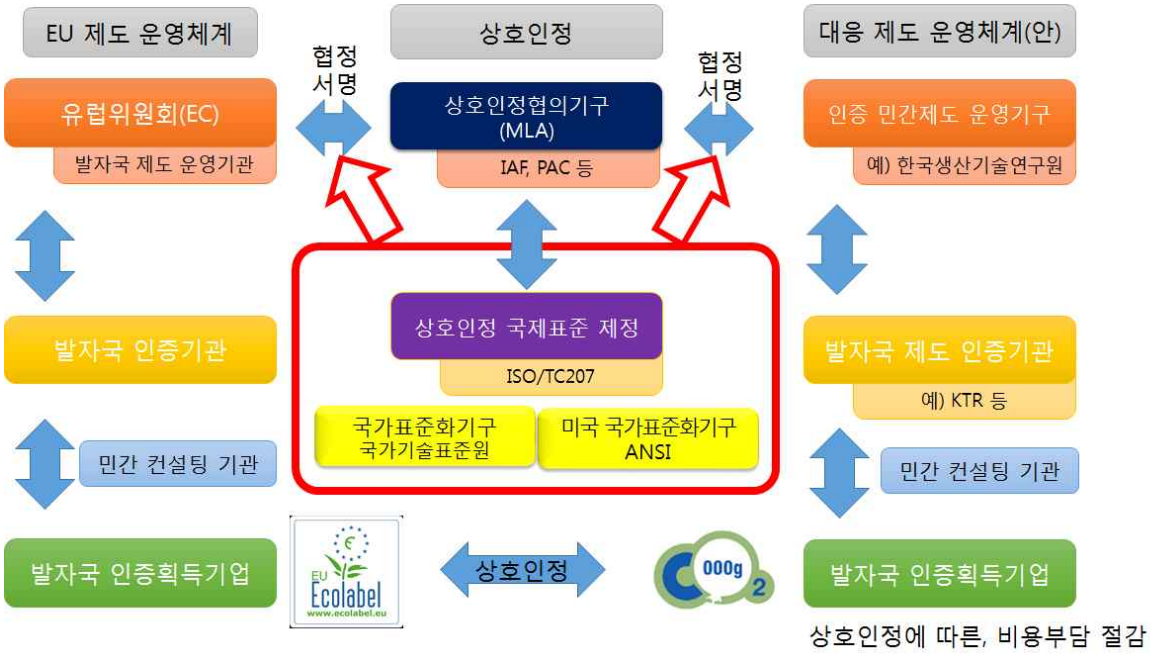
* EC는 제도 기획, 시범사업, 평가 및 법안 작성까지만 8년('13~'20)의 시간 소요



<그림> EU 통합 환경라벨(환경발자국) 도입 및 운영 체계와 우리 수출기업 예상 부담

2) Department for Business, Innovations and Skills (2012) Low Carb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
3) Green Seal (2009) Green Buying Research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같은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여, ‘15.10월 통합 환경인증(환경발자국)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표준을 공동으로 ISO/TC207에 제안하였으며, ‘16.4월 ISO/TC207 자문회의(CAG)의 중재에 따라 미국국립표준협회(ANSI)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.



<그림> 통합 환경인증(환경발자국)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표준화와 기대효과